한라시론

김 장 환
전 광저우총영사·전 국제대 교수

중단된 투자유치사업의 원만한 해결 방안은 없을까?

국내외 경제상황도 밝지 않은 가운데 건설이 이미 중단된 예래휴양단지에 이어 최근 출범이 좌초된 서귀포헬스케어타운을 보면 안타까움이 더 커진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고 있던 외자유치사업 중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가 중단됨에 따라,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도 큰 상처를 가져 올 것 같기 때문이다.

사전준비가 부족했거나, 복잡한 내부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작된 외국인투자유치는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투자유치는 시작에서부터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완공이후까지 일관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후진국의 투자유치사례와 비교해 보면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승인하는 주체가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분산된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오던 부문에서 타협점을 찾아내지도 못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투자유치기관의 역할도 분명치 않았다.

한편, 투자유치를 주도해온 핵심인사들이 선거 등으로 교체됨에 따라 일관성 지속과 순조로운 진행 유지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고 또 당사자들 간 머리를 맞대고 윈-윈 할 수 있는 차선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5억불 이상 투자를 할 경우, 카지노 사업으로 투자비용을 보다 빨리 회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도가 카지노 및 관광부문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할 만한 매력과 우위점이 적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고급의료 및 고급휴양지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서귀포헬스케어타운을 유치했다면, 제주도민들도 공감 및 호응해 주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예기치 못한 우려 사항이 제기되었다면 반대보다는 중앙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러한 우려요인을 충분히 고려해 주도록 요구하면서 진행을 지켜보아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들의 여론과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고려해야 겠지만, 당초 제한이 없었던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국한하여 병원설립을 조건부 허가하고, 또 이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는 경기중간에 게임규칙을 바꾸는 것과도 유사한 것으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

지금으로서는 최적의 절충안은 찾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제주도민들도 행정부문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무절제한 비판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성원을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력산업으로 등장한 관광산업도 다녀간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친절과 배려가 도민 전체에서 배어나오지 않고, 제주도라는 자연환경에만 의존한다면 경쟁력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중단된 사업의 재개 방안을 찾아내어, 다 함께 윈-윈 하는 기회로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입주기업도 없는 혁신도시, 언제 훈풍 부나

혁신도시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 도시를 말합니다. 부산·대구 등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참여정부 때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도시가 추진됐습니다. 현재 전국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신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지역은 입주기업이 전무하다시피해 대조를 이뤄 안타깝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입주한 기업이 모두 828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2016년 249개사임을 감안하면 2년여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135개사가 새로 입주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입주한 기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48개사로 가장 많고, 이어 광주·전남(32개), 부산(22개), 대구(20개) 순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와 '혁신도시 기업입주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실적을 보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아예 입주기업이 없습니다. 클러스터 용지분양은 계획용지 15만1000㎡(26필지) 가운데 13만1000㎡(22필지)로 분양률이 86.8%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는 7000㎡(2필지)로 입주율은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9.8%)에 이어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입주기업도 대륜동복지문화센터와 서귀포소방서 등 공공기관 2곳에 불과합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전혀 없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혁신도시가 제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해 걱정입니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도 입주기업이 한곳도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기업들이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입주를 꺼린다고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기업유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기업유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도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난해 제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은 19.4%로 전국평균(23.4%)에 비해 매우 저조합니다. 혁신도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시원치 않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편집국 25시

박 소 정
편집부 기자
cosorong@ihalla.com

옛 이름 찾기

봄 기운이 가득했던 4월도 지나가고 있다. 제주의 4월은 계절은 봄이지만 마음은 겨울같은 달이다. 잊어서는 안될 슬픈 역사의 계절이기에 그렇다. 지난 제주4·3 희생자 추념일, 추념식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유족들의 슬픈 이야기들과 생존자들의 한 서린 증언들을 다룬 기사를 지면에 담는 작업은 가슴 한 켠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올해에도 4·3과 관련한 무수한 약속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관심을 갖고 본 내용이 하나 있다. 바로 '옛 이름 찾기'이다.

제주국제공항과 신제주를 연결하는 7호 광장 부근의 언덕. 이곳은 1970년대 초 해태제과가 이곳에 해태상을 세우면서 수년간 '해태동산'이란 명칭으로 불려 왔다. 하지만 이곳이 4·3 당시 학살터로 이용된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지 않을 것이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도령ᄆᆞ루(도령마루)'라고 한다.

이미 40년 전 소설가 현기영은 단편 '도령마루의 까마귀'를 통해 도령마루 일대의 4·3 학살을 다뤘다. 지난해 제주작가회의와 탐라미술인협회는 '4·3역사의 조난지 도령마루'란 제목의 안내판을 세웠다. 이같은 '도령마루'라는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옛 이름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제주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4·3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도령마루가 이제는 특정 업체의 이름보다는 제주4·3의 의미를 간직한 지역 고유의 명칭인 도령마루로 불려져야 한다."

묻혀졌던 4·3의 역사를 꺼내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싶다. 이번 '옛 이름 찾기'를 시작으로 그동안 쏟아져 나온 무수한 약속들이 하나씩하나씩 이뤄져 제주의 4월, 시리기만한 봄이 조금은 따뜻해지기를 기대해본다.

뉴스-in

'방문벨 서비스' '웃음박수 프로그램' 눈길

법제처, 오영훈 의원 주장 반박

○…법제처가 24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오영훈 국회의원이 23일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반박.

오 의원은 "2017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법제처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사실과 다르다"며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원을 포함해 어촌계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일축. 이소진기자

서귀포시 친절 시책 시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는 이달 22일부터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방문벨 서비스'와 '웃음박수 프로그램'을 시행해 눈길.

방문벨 서비스는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해 출입구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인근에 있던 직원이 도움을 주는 방식이고, 웃음박수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친절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웃음박수를 치면서 활기찬 한주의 시작을 도모하는 방식.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친절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 이태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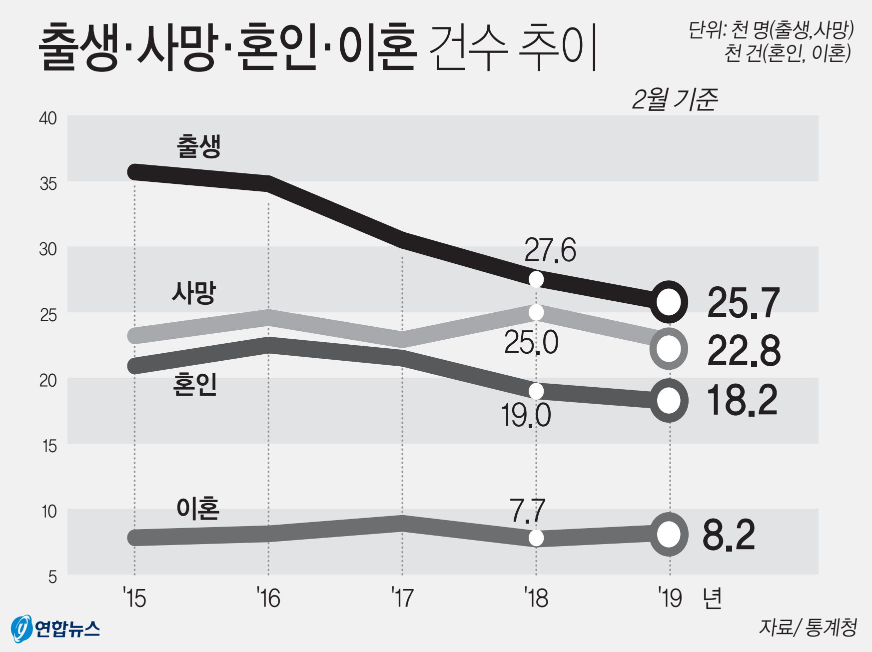
"IB 고교, 수시 중심"

○…토론·과정중심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IB(국제 바칼로레아)'가 한국어로 번역돼 2022년부터 본격 운영(고교(DP)과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IB DP 도입학교는 수능을 준비하지 않고 수시 중심으로 간다"고 강조.

이 교육감은 24일 최근 확정된 'IB 한국어화'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입 취지 등을 설명.

이 교육감은 IB 교육 본격 도입 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전문 '교사양성' 필요성을 언급. 오은지기자

그래픽 뉴스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정266
(2017고정47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등
• 피 고 인 김 기 수
위 피고인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위반의 점은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24.
판사 이 장 욱

당사에서 제조하는 편백 피톤치드 추출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미국 FDA화장품
심사기준 합격 판정 되었음
편백피톤치드 추출수는 인체에 무독성이며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집먼지진드기·곰팡이·황색포도상구균등에 탁월한 살균·살충·항균·항충 작용은 물론 악취제거·새집증후군·스트레스 완화 시켜줌
제주편백우드(영)
T. 064-725-0622
제주시 보배길 32-16(제주대학교병원 남쪽)
벤처기업·편백피톤치드 추출 전문기업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귤 신품종 분양
2019년 봄 출하 예정 묘목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황금향 · 레몬
아마나스 · 댕유자
조 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농장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방향 300m 위치)
종자업 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

고개숙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기부전클리닉 ▶조루약물주입법
▶전립선클리닉 ▶남성회성기질환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의원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 제주은행 2F

서귀포시정 소식

제2회 서귀포 3분 관광 영화제 작품 전국 공모
○ 접수기간 : 2019. 4. 10 ~ 7. 19
○ 참여자격 :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일반부(대학생 및 일반인)/학생부(초·중·고) 구분
○ 공모주제
- 자유주제 : 서귀포의 관광·문화·역사 자원 모두를 소재로 함
- 마을문화 : 서귀포의 특색 있는 마을 문화 소개
※단순 관광지 나열식의 영상은 사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출 품 수 : 1인(또는 1팀)당 1편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작품파일 이메일(3minmovie_sgp@daum.net) 접수
○ 작품규격 : 3~7분 내외 / mp4 / Full HD 1920×1080 이상
- 극장 또는 온라인 매체에서 상영 할 수 있는 고품질이어야 함
○ 시상내역 : 대상 350만원, 금상(일반/학생) 각 200만원, 은상(일반/학생) 각 100만원, 특별상 50만원
○ 문의전화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760-2653)

2019.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 열람 및 이의신청 알림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9. 4. 30 ~ 5. 30
○ 열람대상
- 2019년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가격
- 2019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
○ 열람방법 :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인터넷 열람
☞ 개별주택가격 :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
☞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서귀포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 가능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 (☎ 760-2351~2355),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 뮤지컬 '안녕 자두야' 공연 알림
○ 공연일시 : 2019. 5. 4(토) 14:00, 17:00 / 60분 / 2회 공연
○ 공연장소 :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 공 연 명 : 가족 뮤지컬 안녕 자두야 '우당탕탕 오디션 대소동'
○ 관 람 가 : 36개월 이상
○ 입 장 료 : 1층 1만5천원 / 2층 1만원
※ 할인혜택 - 50% : 4·3유족, 65세 이상,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농협)
- 30% : 문화사랑회원, 단체(20인 이상) 등
○ 예매방법 : 2019. 4. 25(목) 09:00부터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및 현장예매
○ 공연문의 : 서귀포예술의전당 (☎ 760-3365)